

문 7. <보기>에서 언급된 의문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보 기 —

의문문 중에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믿고 있으면서 그것을 청자의 동의를 구하여 확인하기 위한 의문문이나, 형태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의미상으로는 긍정이나 부정을 단언(斷言)하는 의문문도 있다.

- ① 윤태가 나쁜 짓을 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 ② 우리 여름에 유럽 여행 가서 정말로 재미있었지?
- ③ 아까 중국 음식점에 짬뽕하고 군만두 시키셨어요?
- ④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저씨가 널 안 도와주겠니?

문 8. 다음 중 '본말'과 '준말'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적지 않은 : 적잖은
- ② 생각하다 못해 : 생각다 못해
- ③ 발을 잘못 디디어 : 발을 잘못 디어
- ④ 깨끗하지 : 깨끗지

문 9.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된 漢字 成語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몸 어디엔가 먹물을 묻히게 되고, 농사를 짓는 농부의 몸에서는 흙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해서 운수(雲水) 행각(行脚)을 즐기는 승려들은 깊은 산골, 물 맑고 경치 좋은 곳을 찾아가 마음을 가다듬고자 한다.

- ① 十匙一飯 ② 近墨者黑
- ③ 曲學阿世 ④ 南柯一夢

문 10. 밑줄 친 ㉠~㉣의 문장 중 높임 표현이 바르게 쓰이지 못한 것은?

최민수 조교: 김 조교, ㉠이진숙 교수님께서 빨리 연구실로 오라고 하시더라.

김영임 조교: 그래, 알았어. 바로 가 볼게.

(이진숙 교수 연구실)

김영임 조교: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진숙 교수: 어서 오게, 김 조교. 점심 식사는 했는가?

김영임 조교: 네, 먹었습니다. ㉡최 조교가 그러시는데, 저를 무척 찾았다고 하던데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세요?

이진숙 교수: ㉢내가 자네한테 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할 연구계획서 작성을 부탁하려고 하네.

김영임 조교: 예, 알겠습니다. 기꺼이 도와 드리죠.

이진숙 교수: 그래 고맙네. 일주일 안으로 좀 작성해 주게.

김영임 조교: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히 계세요.

- ① ㉠ ② ㉡
- ③ ㉢ ④ ㉣

문 11.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바르게 된 것은?

- ① 번번히 실패했다. ② 산 넘어 남촌에는
- ③ 편지를 붙인다. ④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문 12. 다음 (ㄱ) ~ (ㄷ) 중에서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ㄱ) 20세기 초 세계의 전력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나갔다. (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던 독일을 예로 들어 보자. (ㄷ) 독일 최대의 전력 공급 회사인 라인란트-베스트팔렌 전력주식회사는 1890년 설립 당시 2백 7십만 kWh를 공급하고 있었다. (ㄷ) 하지만 라인강변을 따라 전력 공급망을 급속도로 확대해 나간 이 회사의 전력 공급량은 1910년에는 1억 2천만 kWh, 1915년에는 3억 9천만 kWh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 ① (ㄱ) ② (ㄴ)
- ③ (ㄷ) ④ (ㄷ)

문 13. 다음 <예문>이 들어갈 위치는?

— < 예 문 —

첫째, 아날로그 정보는 즉각적인 인텔리전스(Intelligence, 전략정보) 단계를 갖출 때에야 시장성을 가질 것이다.

둘째, 책의 생산에 있어 '사이클 타임'(책의 기획에서 판매를 끝낼 때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셋째, 시각적 이미지를 키워야 한다.

넷째, 음성화에 적응하는 책 만들기이다.

(가) 2000년대에 들어선 지금 출판시장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 안정된 매출을 이루고 있는 출판사들은 점점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는 반면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한 많은 출판사들은 한없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틈새시장 또한 사라지고 있다.

(나) 물론 명명백백한 사실은 미래에는 두 가지 형태의 책, 즉 종이책과 전자책이 공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까지 사전류를 제외하고는 전자책이 시장성을 가진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종이책의 발간을 중지한다는 발표를 하자마자 이것이 마치 종이책의 종말을 알리는 서막인 것처럼 언론은 호들갑을 떨었다.

(다)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세기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는 새로운 양상이 드러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양식에 부합하는 책 만들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라) 디지털이 갖는 장점은 정보전달 속도의 신속성, 정보를 아무리 사용해도 양과 질이 변하지 않는 재생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쌍방향성, 방대한 양의 정보의 저장이 가능한 저장성 등일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종이책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① (가) 다음 ② (나) 다음
- ③ (다) 다음 ④ (라) 다음

문 14. 다음은 각각 신라시대 '처용가(處容歌)'와 고려시대 '처용가'의 한 대목이다. 이 두 구절의 밑줄 친 부분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차이를 잘못 설명한 것은?

(가) 들은 내 해였고, 들은 누구 했고.
 ㉠ 본디 내 해다마는 빼앗은 것을 어찌 하리오.

(나) 아으 들흔 내해어니와 들흔 뉘해어니오.
 ㉡ 이런저귀 處容아비웃 보시면
熱病大神(열병대신)이아 膾(회)사가시로다
 …… (중 략)
山이여 玆히여 千里外에
處容아비를 어어려거져
아으 熱病大神의 發願(발원)이샷다.

※ 어어려거져 : 비켜가고저

- ㉠ ㉡
- ① 체념 (諦念) 단죄 (斷罪)
- ② 비극 (悲劇) 희극 (喜劇)
- ③ 초월 (超越) 대결 (對決)
- ④ 외유 (外柔) 내강 (內剛)

문 15. 밑줄 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날 밤 그 창고에 불이 났다. 순식간에 흠뻑 타버렸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어린애가 둘 타 죽었다고 했다. 다행 이랄까 밖에 있었던 그들은 피해가 없었다.

가마니 더미 밑에서마져 쫓겨난 그들은 소방대 펌프가 퍼부은 물이 번질번질 얼은 한길 가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 “해가 뜨기를 그날 밤처럼 간절히 기다려본 일은 없습니다.”

해만 뜨면 그래도 얼어 죽기는 면하려니 하는 사이 마침내 긴 겨울밤은 새기 시작했다. 흰히 동쪽이 밝아왔다. 이제는 또 어디고 의지할 곳을 찾아야 했다.

그가 막 골목을 빠져나가려 할 때였다. 간밤에 아들을 태워 죽여 버렸다는 의사가 안경을 벗은 눈을 찌푸리고 마주 섰다. “이 사람입니다.”

의사는 뒤에 선 청년을 돌아보았다. 아내에게 연락을 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수갑을 채운 두 팔을 앞에 읍하고 경찰서로 끌려갔다. 눈앞에서 반짝반짝 불꽃이 튀었다.

쫓겨난 분풀이로 창고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었다. 사흘 만에야 놓여났다.

- 이범선, '몸 전체로'에서 -

- ① 경찰에게 자신의 무죄를 격렬하게 주장했다.
- ② 누명 때문에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복받쳤다.
- ③ 무고(誣告)한 사람에 대해 강한 증오심을 품었다.
- ④ 어떻게든 결백을 증명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문 16. 밑줄 친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심신이 지치고 육체가 피로해지는 경험을 자주 한다. 홀로 한가하게 자신을 돌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향은 일종의 보너스다. 이 한가한 틈을 타서 잠깐 동안이나마 일상에서 떠나 사람과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더불어 호흡하고 느끼고 노래한다면 정신은 한층 풍요로워질 것이다.

- ① 그는 나무를 잘 탄다.
- ② 어둠을 타고 도망쳤다.
- ③ 타는 듯한 색채를 그린다.
- ④ 비가 오지 않아 밀이 탄다.

문 17. 다음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흔히 보게 되는 비유의 예이다. 이 가운데 비유의 방식이 다른 하나는?

- ① 내 마음은 호수요.
- ② 사랑은 여행이다.
- ③ 영화계에 새 얼굴이 나타났다.
- ④ 사장님은 지금 저기압이다.

문 18. 다음 용례에서 '살천스럽다'의 뜻은?

㉠ 그렇게 살천스러우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지.

㉡ 어둠 속에 눈을 뜬 강실이한테 무참히 끼쳐 든 것은 생전 처음 맞닥뜨린 낯빛의 살천스러운 기운이었다.
 - 최명희, '혼불'에서 -

㉢ 김제택은 살천스럽기가 웬만한 말에도 서릿발이 쳤으나...
 - 송기숙, '녹두장군'에서 -

- ① 쌀쌀하고 매섭다.
- ② 미련스럽다.
- ③ 아둔하고 고집이 세다.
- ④ 의문스럽다.

문 19. 다음 한문 문장에 들어갈 한자를 차례대로 적은 것은?

不 敢 () 固 所 ()

- ① 靑 - 源 ② 請 - 願
- ③ 聽 - 遠 ④ 淸 - 援

문 20. 다음 글의 밑줄 친 ()안의 ㉠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는?

예술은 문명을 배경으로 하여, 다시 말하면 문명을 바탕으로 삼아 개화, 발전한다고 인식되어 있다. 곧 예술과 문명은 병행하는 것이라는 명제가 나온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주장은 문화와 예술을 분석 비판하는 지성에 의하여 懷疑에 逢着하고 있다. 그 異議는 바로 이것이다. 예술은 進步하는가? 현대에 있어서 누구나 진보에 대한 신념을 喪失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가장 支配的인 견해는 進步라는 개념은 (㉠)이고, 그것은 역사의 기록 으로서는 (㉡)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 으로서는 (㉢)이며, 사회적 노력의 이상 으로서는 허수아비라고 생각하고 있다.

- ㉠ ㉡ ㉢
- ① 迷信 虛僞 空虛
- ② 虛僞 迷信 空虛
- ③ 空虛 迷信 虛僞
- ④ 虛僞 空虛 迷信